

마사회 해외종축사업 케이닉스, 한국경마 기술력 세계에 알리다

닉스고, 美 이클립스 어워드 2세 수말 최종후보 선정

(케이닉스 선발 경주마)

작년 11월 미국 브리더스컵 준우승 게임 워너·임프로버블과 수상 경쟁

한국마사회의 해외종축사업 케이닉스(K-Nicks)를 통해 선발된 경주마가 미국 경마 시상식 최종 후보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미국 브리더스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닉스고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시상식인 '2018 이클립스 어워드'(2018 Eclipse Award) '2세 수말' 최종 후보 세 마리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48회를 맞은 이클립스 어워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북미 경마계의 연말 시상식으로 한국마사회의 '연도대표상'과 비슷하다. 지난해 북미 경마 17개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경주마 1두 또는 관제자 1명을 선정한다. 전미 서러브레드 경주협회(NTRA)를 비롯해 미국의 경마 일간지인 데일리 레이싱 폼(Daily Racing Form) 등 249명의 평가단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가 정한다. 수상자는 24일 발표한다.

닉스고는 역대 케이닉스 선발마 중 최고의 활약을 펼쳐 한국 경마 기술력을 입증했

다. 브리더스 퓨처리티(GI) 우승, 브리더스 컵(GI) 준우승 등의 전적을 인정받아 이번에 '2세 수말' 분야 후보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함께 후보에 오른 경쟁마는 브리더스컵 우승마 게임 워너(Game winner), 로스엔젤레스 퓨처리티(GI)에서 우승한 임프로버블(Improbable)이다. 2015년 37년 만에 삼관마에 성공해 유명세를 떨친 아메리칸 파로아(American Pharoah)는 전 해인 2014년 시상식 '2세 수말'에서 수상한 바 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문 수상마에 대한 경마 팬

들의 관심이 높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한국 경마가 국제무대에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케이닉스를 필두로 한국 말산업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2015년부터 DNA 정보를 분석해 말의 잠재력을 예측하는 케이닉스로 경주마를 선발해 해외 대회에 출전시키고 있다. 경마 선진국에서 실력을 입증한 뒤 씨수말로 육성해 한국 말산업 발전을 견인할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용은 기자 sadzoo@donga.com



서울 첫 경주 27전 21승 경마 프리기수 전성시대

박태중·문세영 등 총 16명 활동



프리 기수들이 새해 첫 주 열린 랫츠런파크 서울 경주에서 27전 21승의 호성적을 거두었다. 5일 15개 경주에서 12개, 6일 12개 경주에서 9개를 우승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경주에 참여하는 기수는 마방에 소속된 계약 기수와 프리 기수로 나눌 수 있다. 계약 기수가 소속 마방의 말들과 훈련하며 일주일에 7회 이하 출전 가능한 것과 달리, 프리 기수는 다양한 마방의 말을 기승할 수 있고 출전 기회도 1일 기준 9번이다. 프리 기수는 출전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실력 검증이 필수지만 기승 기회가 많다는 점은 기수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랫츠런파크 서울의 인기 기수인 박태중, 문세영, 임기원 등이 모두 프리 기수로 활동하고 있고 매년 수가 늘고 있다. 올해는 김정준, 이동하 기수도 프리로 나서 지난해보다 총 16명이 프리 기수로 뛰고 있다.

이번에 프리로 나선 이동하 기수는 "더 많은 말을 기승하고 싶어 전향했다"며 "훈련량이 많아지겠지만 운동 강도를 높이는 등 준비를 성실히 해 다승기수 10위 안에 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용은 기자



20일 은퇴식을 갖는 클린업조이와 민형근 마주. 클린업조이는 통산 출전 32전에서 우승 15회, 2위 9회를 거두며 외산 명마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뛰느라 고생했어, 클린업조이 제주에서 편안한 노후 보내렴

'역대최강 외산마' 클린업조이 20일 은퇴

통산 32전 우승 15회·2위 9회 활약 민형근 마주, 마사회에 관심마 기증

'랫츠런파크 서울의 자존심' 클린업조이(미국, 거, 8세, R125)가 은퇴한다.

통산 출전 32전에서 우승 15회, 2위 9회를 거두어 승률 46.9%, 복승률 75.0% 연승률 84.4%를 기록한 자타공인 역대 최강의 외산 명마다. 하지만 최근 다리부상으로 더 이상 경주 출전은 무리라는 진단에 따라 결국 은퇴가 결정됐다.

2013년 가을 데뷔한 클린업조이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각종 경마 대회를 휩쓸며 무적 행진을 펼쳐왔다. 팬들의 큰 인기를 모으며, 클린업 시리즈 '마주 팬담'을 형성했다. 당시 서울경마장의 성적

부진과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클린업조이'는 강한 끈기와 추진력으로 2016년 KRA컵 클래식 대항경주에서 우승과 그해 그랑프리틀 모두 우승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였다. 특히, 3년 연속 도전 만에 그랑프리틀 우승해 서울경마의 그랑프리 우승에 목말라하던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2016 연도대표마상도 수상했다.

클린업조이는 사회공헌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민형근 마주는 우승을 할 때마다 클린업조이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에 기부했다. 소아암 어린이와 시각장애 유아학교 건립 등을 후원했고, 얼마 전에는 시각장애 어린이에게 점자학습기를 선물했다. 2017년 개교한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 유아 특수학교인 서울효정학교에는 클린업조이의 이름을 딴 교실이 있다.

하지만 7세에 접어들며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던 클린업조이는 최근 다리 건(腱)이 70% 손상됐다는 말 보건원의 진단을 받아 은퇴를 결정했다.

민형근 마주는 "클린업조이와 함께해온 5년여의 시간을 잊을 수 없다. 팬들의 뜻에 따라 마사회에 관심마로 기증해 클린업조이를 보고 싶어 하는 팬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거세마인 클린업조이는 은퇴 후 랫츠런파크 제주에서 관상마로서 지내게 될 예정이다.

한편, 20일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리는 클린업조이의 은퇴식에서는 경마팬 대표가 클린업조이의 행복한 여생을 기원하며 마명이 각인된 물레를 선물할 예정이다. 서울 효정학교에서는 클린업조이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용은 기자

경마 콤팩트 뉴스

마사회 '고객응대 매뉴얼' 재정비

한국마사회는 서비스 업종 트렌드를 반영해 '고객응대 표준매뉴얼'을 재정비했다. 근무자들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객응대 표준매뉴얼에 악성민원 대응·스트레스 완화법을 포함시켰다. 또한 현장의견을 반영해 '용모복장 및 대기지세'와 같은 서비스 지침을 근무자 기본권을 존중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완화했다. 감사, 배려 등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통하는 52가지 미덕으로 구성된 베퉼 카드를 활용한 감성코칭 교육기법도 현장에 도입했다. '칭찬카드 제도'로 근무평가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최다수령자에게는 해외 견학 기회를 제공해 근무자들의 동기부여도 강화했다.

한국경마, 올해 총 2701경주 시행

한국마사회는 서울과 부경, 제주를 합쳐 12월 29일까지 올해 총 2701개의 경주를 시행한다. 서울과 부경 경주마가 모두 출전하는 오픈 경주가 늘었고, 국제경주 코리아 스프린트는 상금을 10억원으로 높였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5일 신년 맞이 고객 사은행사를 개최했다. 황대우 조교사협회장, 서인석 조교사, 황순도 기수협회장, 이기회 기수부협회장 및 한국마사회 임직원 등 60명이 새해 첫 경마 경주를 기념해 5000명의 고객에게 백설기 떡을 증정했다. 축하공연으로 브라스 밴드 무대와 말인형 퍼포먼스도 열렸다.

정용은 기자



축구팬 53% "손흥민의 토트넘, 맨유 꺾는다"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 중간집계 리버풀, 브라이튼 제압 예측 84%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12일(토)부터 14일(월)까지 벌어지는 잉글랜드 프로축구(EPL) 8경기와 스페인 프로축구(프리메라리가) 6경기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 토트넘(홈)-맨체스터유나이티드(원정)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절반이 넘는 52.70%가 손흥민을 앞세운 홈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팀의 무승부 예측은 24.99%로 나타났고, 원정팀 맨유의 승리 예측은 22.31%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보여준 기세를 보면 토트넘의 예상대로 토트넘이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독 교체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맨유의 상승세를 살펴봤을 때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경이다.

리그 선두 리버풀은 무려 83.71%로 이번 회차에서 압도적인 최다 지지를 얻었다. 상대팀인 브라이튼이 받은 투표율은 6.25%에 불과했다. 리그 13위 브라이튼은 안방의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올 시즌 우승을 노리는 리버풀의 기세를 막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나 지난 맨체스터시티전에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한 리버풀은 이어진 FA컵 올버턴전에서 패하며 자존심이 매우 구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을 상대로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5위 아스널 역시 원정경기임에도 불구하고 65.79%의 표를 얻어 승리 가능성을 높였다. 홈팀 웨스트햄은 13.75%를 받았고, 20.46%는 양팀의 무승부를 전망했다. 라리가에서는 팀의 핵심이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떠나 보낸 후 위기를 겪고 있는 레알마드리드가 베티스 원정에서 승리 투표를 57.14%를 얻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승무패 1회차는 오는 12일(토) 오후 8시50분에 발매를 마감한다.

삼성화재, 1~3세트 OK저축은행보다 우세

배구토토 매치 6회차 중간집계 전 세트 3~4점차 예상 1순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11일(금) 안산상록수체육관에서 오후 7시에 열리는 2018-19시즌 V리그 남자부 OK저축은행-삼성화재전을 대상으로 한 배구토토 매치 6회차 투표를 중간집계 결과, 참가자들은 원정팀 삼성화재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 세트별 예상 승리팀은 모두 원정팀인 삼성화재의 차지로 돌아갔다. 자세한 투표율을 살펴보면, 1세트에서 삼성화재는 50.10%를 획득해, 49.88%를 기록한 OK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승리 예상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3 세트에서도 삼성화재는 58.70%와 67.55%로 과반이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홈팀 OK저축은행은 각각 41.28%와 32.45%로 집

계됐다. 1~3세트까지의 각 세트 별 예상 점수 차이는 모든 세트에서 3~4점차가 1순위를 차지했으며 1세트 35.97%, 2세트 38.80%, 3세트 34.18%로 나타났다.

최근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삼성화재가 좋다. 지난 1월 8일 KB손해보험에게 승리하며, 2연패를 끊어냈기 때문이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최근 5경기에서 3승2패를 기록하게 됐다.

반면 OK저축은행은 지난 12월 16일 대한항공전 이후 펼쳐진 모든 경기에 패해 5연패의 부진에 빠져있다. 팀의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쿠바투급' 요스바니가 최근 주춤하면서 팀의 경기력에도 큰 영향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요스바니의 자신감 회복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당분간 OK저축은행의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배구토토 매치 6회차 게임은 11일(금) 오후 6시 50분에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한국 vs 키르기스스탄 축구 매치 2회차 발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는 오는 12일(토)에 아랍에미리트(UAE) 하자빈 자이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9AFC아시아컵 조별예선 2차전 한국(원정)-키르기스스탄(홈)전을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매치 2회차 게임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은 조별예선 1차전에서 중국에게 1-2로 역전패 했지만 선제골을 성공시키는 등 저력을 보여줬다. 한국이 제 궤도를 찾는다면 어렵지 않게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겠지만, 키르기스스탄의 밀집수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한번 저 득점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한편 이번 축구토토 매치 2회차 게임은 11일(금) 밤 9시50분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편집 | 김건진 기자 bong82@donga.com